

❖ 요나 2 장, ‘기도하는 요나!’

들어가기

본 장은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3 일 동안 갇혀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중에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나는 자신이 처한 고난과 고통의 상황을 인내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아뢰었고, 그와 같은 고난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지키시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감사와 찬송, 서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물고기를 명하여 요나를 육지에 토해 내게 하셨습니다.

1. 큰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요나 (1-2 절)

1) 물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1 절)

- 우선 1 절에 기록된 ‘기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팔랄’로, 이는 ‘감사 기도’를 뜻하는 말!
 - ex: 사무엘을 출산한 후 드린 한나의 감사기도(삼상 2:1),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와 축복의 약속을 받은 다윗의 감사기도(삼하 7:27)
 - 곧 요나는 물고기 뱃속이라는 고난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구원해 주신+주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
 - 참 성도는 항상 나의 영혼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인내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

■ 특별히 2 절 주목!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①. 요나는 당시 상황을 ‘고난’이라 정의! (‘苦難’: 괴로움과 어려움)

②. 물고기 뱃속 => ‘스울의 뱃속’!

- 요나는 물고기 뱃속을 ‘스울 또는 음부’ 곧 지옥이나 무덤 속 같다고 정의!!
- 곧 괴로움과 어려움이 가득한 절망적인 상황이요,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 오는 고통의 상황이었다는 것!!

- 그런데 이런 큰 고난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 요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

①. 기도의 대상 => ‘여호와 하나님’ =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 곧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닌 천지만물을 직접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참 신, 유일하신 신!
전능하신 하나님!!

=>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인간이 찾고 기도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함!!

②. 어떻게 기도했나? => ‘불러 아뢰고’ + ‘부르짖어’ 기도함!!

=> 우선 참고로 기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로 구분될 수 있음!

따라서 자기 기준에 맞는 한 두 가지의 기도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오류를 범하면 안됨!! 예를 들어...

- a) 식사하고 하느냐 안하고 하느냐에 따라 보통기도와 금식기도로 구분
- b) 소리를 내고 하느냐 안내고 하느냐에 따라 묵상기도와 통성기도로 구분
- c) 혼자 하느냐 여러 명이 합심하여 하느냐에 따라 개인기도와 합심기도로 구분
- d) 자기를 위한 것이냐 남을 위한 것이냐에 따라 사적기도와 중보기도로 구분

✓ 그럼 당시 요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금식기도 + 개인기도 + 사적기도)

=> 요나는 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어 기도!

=> 시편 50:15,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③. '주께서 대답하셨고, 주께서 들으셨나이다' 라고 증언!

=> 비록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해 발생한 고난이요 고통이지만, 그 속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

=> 따라서 성도는 어떤 상황이든 항상 하나님을 의심치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함!!

2. 그럼 요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나요? (3-9 절)

1)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 (3 절)

■ 3 절 주목!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돌렸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 곧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지만, 이 일이 일어난 원인은 자신의 죄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 때문이란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인정한 것!

- ‘주의 파도와 튼 물결이~’

=> 마찬가지로 자신이 당하는 모든 고난이 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르치고자 사용하시는 징계의 도구임을 인정하고 고백한 것!!

✓ 믿음의 성도는 모든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인정/고백할 줄 알아야 함!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나의 부족을 깨우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도구됨을 깨달아야 함!

2)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것을 고백! (4 절)

■ 4 절 주목!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 우선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다에 던져지게 하신 것을 마치 하나님의 보호와 관심에서 쫓겨난 것처럼 표현!

=> 우리도 살면서 당하는 절망적인 고난과 고통의 순간 이런 생각과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음!

-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생각이 들 때, 요나는 무엇이라 고백했는가?
=> 그럴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했음!!
=> 곧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할 것이라 고백한 것!!

3)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죽음의 순간 구원해 주셨음을 고백! (5-6 절)

■ 5-6 절 주목!

“물이 나를 영혼까지 돌렸사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 우선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의 상황이 묘사됨!

- a) 물이 자신의 영혼까지 돌렸음! => 곧 생명을 잃는 절박함을 표현!
- b) 깊음이 에워싸고, 바다 풀이 머리를 감싸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고, 땅이 그 빗장으로 오래도록 막음!!
=> 바다 깊이 바닥까지 빠져들어 결코 헤어날 수 없이 죽음을 맞게 되는 상황이 묘사!
(참고로 우울증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표현을 많이 듣게 됨!)
=> 살면서 이와 같은 절망적인 순간을 혹시 경험한 적이 있는가?

■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죽음의 순간,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구해주셨다’고 고백!

- 특별히 6 절에서 요나는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고백!!
=> 여기 기록된 ‘구덩이’란 표현은 ‘죽은 자의 영역’을 나타내는 통상적인 표현 (ex:무덤)
=> 곧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셨다고 고백한 것!
=> 1 차적으로 큰 물고기를 건지신 구원을 의미할 것이고, 이를 통해 자신을 다시 살게 하실 2 차적인 구원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

- ✓ 절망적인 고난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오늘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헤치고 승리하게 하실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

4) 영혼의 피곤함을 느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한다고 고백! (7 절)

■ 7 절 주목!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 곧 어떤 상황에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한다는 것!
=> 요나가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고 감사하며 3 번까지 믿음으로 기도했다 하더라도, 당시 요나가 처한 상황은 어떠한가? 캄캄한 물고기 뱃속이요, 여전히 절망적+고통스럽다!!
=> 그로 인한 몸과 마음도 영혼도 피곤해지는 것은 당연한 인간의 약함 아닐까?

=>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결단을 해도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고난과 고통의 연속은 우리의 몸도 마음도 나아가 영혼까지 피곤하게 만든다!! 그런데 이때 우리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금 생각하며 기도해야만 한다!!!

- 특별히 요나는 영혼이 피곤한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주의 성전에 미쳤다’ 라고 고백했음!!

=> 비록 현실은 절망적인 고난과 고통의 상황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자, 그의 영혼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고,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 같은 평안을 얻었다는 것!!

=> 이것이 바로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비밀이 아닐까?

5)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겠다고 결단! (8-9 절)

▪ 8-9 절 주목!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 ①. 우선 요나는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린다고 고백!

=> 곧 저들의 행위 자체가 바로 우상이 헛된 것, 실존치 않는 것임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

- ②. 그러나 자신은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약속!

=> 곧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분이요, 구원자 되심을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

- ③.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겠다고 약속!!

=> 곧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제는 잊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서원한 것을 갚겠다고 고백한 것!

=> 우리도 주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항상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키고자 힘쓰며 사는 성도들이 되자!

3.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하자, 물고기가 그를 욕지에 토해내었습니다. (10 절)

▪ 10 절 주목!

“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욕지에 토하니라”

-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섭리하심!

-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 일을 산 것! + 정확히 해안에 토해 낸 것!

- 이 사건은 죽음에서 3 일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표! (지난 시간 나눔)

❖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서 든 생각과 결단한 내용들이 있다면?

❖ 중보기도 나눔